

전주시 ‘아이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시책 편다

올해부터 18억 투입 산모 회복·신생아 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
출생아 가정 쓰레기봉투 지급 등 저출산 극복 위한 대책 마련

전주시가 올해부터 산모의 출산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시책에 나선다.

시는 또 모든 출생아 가정에 자녀 출생으로 발생한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

먼저 전주시보건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보다 7억원 늘어난 18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만 지원하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를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기준중위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20% 아하는 3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14만6494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4만7114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면 된다.

이를 통해 소득 기준이 초과해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산모들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둘째아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식사준비 및 영양·위생관리, 신생아 청결 관리, 수유·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주 생활 공간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산모 신분증 등을 지참해 담당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

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전주시 에 출생신고한 지난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출생아 1명당 종량제 쓰레기봉투 10 L 짜리 60매를 한 번에 지급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출생장려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작지만 세심한 배려를 통해 자녀 출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청렴한 당신! 곡성의 얼굴입니다”

곡성군, ‘부정부패 제로’ 직원들에 청렴거울·수첩 배포



곡성군이 올 한해를 ‘부정부패 제로, 청렴 곡성 원년의 해’로 정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청렴 거울과 청렴 수첩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시책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8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2019년 첫 청렴시책 활동으로 1000여개의 청렴 거울<사진>과 업무수첩을 제작,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청렴 거울에는 ‘청렴한 당신! 곡성의 얼굴’이라는 문구를 새겨졌고, 수첩에는 ‘청탁은 비우고, 청렴은 채우고’라는 글귀가 담겼다.

군은 아울러 올 한해 ‘청렴골든벨’, ‘1부서 1 청렴시책 추진’, ‘청렴 확산 이행 분기보고회’ 등도 차례차례 추진키로 했다.

곡성군이 청렴 문화 확산에 올인하고 나선 것은 외부 평가에 대한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곡성군은 지난해 전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1등급(종합 3위)을 받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종합 3등급에 그쳤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남원시,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올해부터 목욕권 10장씩 나눠준다

남원시가 올해부터 70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목욕권을 지급한다.

남원시는 지난 4일 남원시청에서 지역 15개 목욕장 업소와 노인 목욕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행복플러스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노인 목욕권을 지원하고 목욕장 업소와 목

욕권 사용 및 요금후불제 정산 등에 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4000원권 목욕권을 연간 10장씩 주며, 수급자는 남원지역 주요 목욕탕 15곳에서 이를 쓸 수 있다.

이번 목욕권 지급에 따라 8000여명의 시민이 혜택을 보며, 연간 4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강화하고 침체한 지역 상권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 깨끗한 거리 만들기 간판정비 추진

‘정읍방문의 해 맞아’ 내장상동 상가 2~3월께 실시

정읍시가 깨끗하고 정비된 거리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내장상동 상동중앙로의 상가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2019-2020년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정읍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내장상동 상가 간판정비를

진행한다.

간판정비사업은 낡고 오래된 간판을 정비해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내장상동 상가간판정비사업(보조금 80%, 자부담20%)에 참여를 원하는 상가

업주들은 오는 31일까지 공동체과 또는 내장상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사업시행방식은 보조사업으로써 상가주(보조사업자)가 간판정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간판정비를 추진하면 된다.

이번 간판정비 대상지역은 현대3차아파트사거리·신성미소지움아파트사거리·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사거리며 접수된 내용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가주는 2~3월께 간판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모양성제 문화관광부 선정 4년 연속 유망축제 올라

고창 모양성제가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에 4년 연속 선정됐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우수문화관광축제 선정에 고창 ‘모양성제’가 4년 연속 유망축제에 올랐다.

문제부는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를 대상으로 우수축제를 선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고, 다양한 특색을 갖춘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 할 수 도록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고창모양성제는 3000년전 고인돌 시대부터 한반도의 문명사적인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대표축제다.

특히 국내외 유일한 답성놀이를 소재로 한 축제로 역사와 전통, 현대가 한데 어우러져 선조들의 유비무환과 협동정신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kwangju.co.kr

영광지역 고소득 농가 크게 늘었다

작년 5000만원 이상 659곳...87곳은 2억 이상 올려

지난해 영광에서 5000만원 이상 고소득 농가가 전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해 5000만원 이상 농가는 65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인 2017년 329곳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323곳,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49곳, 2억원 이상 87곳이었다.

품목별로는 벼, 보리 등 식량 작물 459곳, 축산 163곳, 원예 특작 35곳, 발작물 2곳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02곳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45곳, 40대 이하 112곳 등이었다.

/영광=이종윤 기자 jlylee@

농가 소득이 늘어난 것은 보리 산업 활성화를 통해 벼·보리 및 축산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했고 생산비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쌀과 농·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각종 직불금 지원이 큰 몫을 했다고 영광군은 설명했다.

김준성 영광군수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비 70억원 규모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 등을 통해 농업의 희망과 비전이 제시되는 행복한 영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lylee@

익산시,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4월부터 199가구 집 수리

익산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대상자 모집은 이달 말까지다.

시는 올해 199가구를 선정해 오는 4월

부터 이 사업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 왔다.

시는 지난해까지 1642가구에 46억 6100만원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했다.

시는 올해 199가구에 7억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가구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시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자붕개량, 화장실 개량, 보일러 수리, 도배, 장판, 창호, 전기 등 주거안정, 에너지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택과(063-859-554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고흥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평가 전국 2위

고흥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8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고흥군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맞춤형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했다.

군비 5억원을 투입해 귀농·귀촌학교

조성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에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해 도시민의 귀농 및 귀촌을 유치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귀향 귀촌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도로접합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지분, 500평씩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8500만원(일시불 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